

논제 I

제시문들은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[가], [나]와 [다], [라]로 분류할 수 있다. 사회 갈등은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사회체제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. 제시문 [가]에서 갈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식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이며, 사회체제 내에서 집단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능한다. 제시문 [나]는 경제의 양쪽은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두 세력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것(꽃)을 창출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으로 말한다.

반면, 사회 갈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. 제시문 [다]는 모든 사회갈등이 경제적 손실임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. 제시문 [라]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 적대관계가 혁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면 사회 갈등이 소멸될 것으로 본다.

2014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사회계 II 예시답안(사회계 오후)

논제 II

혐오 시설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해 제시문 [마]는 이익 배분을 통한 갈등 조정을, 제시문 [바]는 주민 참여 확대와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. 제시문 [마]에 의하면, 이해 당사자들이 혐오 시설의 설치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혐오 시설이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거나 세금 감면,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 대책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이다. 한편, 제시문 [바]는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. 먼저 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별로 포럼을 구성하고, 숙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다.

그러나 제시문 [마]에 기반한 갈등 해결 대책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특정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고,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공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과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. 한편, 제시문 [바]의 심의 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론장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, 지역 갈등의 지리적 범위가 커지면 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. 또한 전문가 등 제 3자의 조정이 없다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.

문제 III

X_1 은 지하차도 길이(단위 m), X_2 는 신축역사 면적(단위 m^2)이라고 하자. 먼저 제약식은 $0.2X_1 \leq 46$ (○○시 예산 제약), $0.2X_1 + 0.04X_2 \leq 376$ (△△공단 예산 제약), $X_1 \leq 200$ (지하차도 공사 한계), $X_2 \leq 9240$ (신축역사 공사 한계)이다. 공사비 지출은 ○○시가 $0.2X_1$, △△공단이 $0.2X_1+0.04X_2$ 이며, 사회갈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지하차도의 경우 $1.5(200-X_1)$, 신축역사의 경우 $0.25(9240-X_2)$ 이므로, 총지출은 $2610-1.1X_1-0.21X_2$ 이고 총지출을 최소화하는 최적해는 (200m, 8400 m^2)이다. 한편, 착공 전인 현재의 총지출은 2610억원이므로 정부의 조정안으로 경제적 손실을 1984억원 절감할 수 있다. 이는 (1)갈등을 경제적 손실로 본다는 점과 (2)정부에 의한 갈등 조정이 경제적 손실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[다]의 요지에 부합한다.